

신체부위 은유와 한국어 속담 및 관용어 교육

Hye Gyeong Kim - De Crescenzo (Aix-Marseille Université)

속담 및 관용어 속에는 이를 사용하는 언중들의 사회, 문화, 역사, 철학, 윤리, 정서, 심지어 민족성까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언어 - 사회 - 문화적 요소가 함축되어 있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겠다. 또한 외국어 학습 시, 그 외국어로 된 속담 및 관용어는 낱말의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데다가 사용빈도가 높은 관계로,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외국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언어 자료인 속담 및 관용어에 대한 학습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하겠다.

한편, 인간의 신체는 시공간을 막론하고, 표현하고 표현되는 일종의 담화의 대상으로 간주해 볼 수 있겠다. 특히 속담이나 관용어와 같은 담화의 유형에서는 모든 언어에서 그 사용이 빈번함을 볼 수 있다. 한국어의 경우도 그 예외는 아닐것이다. 인간의 신체부위의 상징을 이용하여 코드화 된 이 담화들은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에 그 상징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.

이에 본 발표에서 초급과정에서 학습되는 신체부위 어휘들을 이용한 (예를 들면, 발, 손, 팔, 등) 한국어 사용자의 인식과 관련된 언어 외적인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는 속담 및 관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.

1. 가치체계를 바탕으로한 공동체적인 혹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: 속담이나 관용어를 통해 해당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체계를 엿볼수 있다. 그러므로 이를 다시,
 - 1) 공동체 연대를 나타내는 속담 및 관용어
 - 2) 대인/사회관계에서의 서열과 관련된 속담 및 관용어
 - 3) 체면에 관련된 속담 및 관용어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.
2. 개인차원에서는 :
 - 1)개인의 이익 또는 이득을 의미하는 속담 및 관용어
 - 2) 태도 혹은 인성에 관한 속담 및 관용어
 - 3) 스스로를 욕보이는 것과 관련된 속담 및 관용어
 - 4) 말조심에 관한 속담 및 관용어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.

또한 이처럼 한국어의 속담 및 관용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의 교육 및 학습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에, 본인의 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와 이에 대한 대화의 장을 열어 보고자 한다.